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전북교육청, 올해 이리공고 등 15개교 선정
학년별 진로설정 등 졸업 후 취업까지 연결
학교 담당자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에 나섰다.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로드맵, 취업맞춤반, 취업멘토링 등 취업준비 과정을 개설·운영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학교는 △이리공업고(이차전지) △수소에너지고(수소에너지) △전주

생명과학고(농생명) △전북베이커리고(베이커리) △전북팻고(반려동물) 등 전북로컬특성화고 10개교와 미래역량강화사업 운영 학교 5개교 등 총 15개교다.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는 △직업계고 취업로드맵 중점 운영 △직무중심 취업맞춤반 운영 △현장실습·취업향상을 3대 중점 과제로 삼아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년별 진로설정 및

자기분석 △취업맞춤반 운영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취업컨설팅 및 멘토링 △일자리 발굴 및 매칭 등 졸업 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26일 취업사관학교 선정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전문성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문형식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운영은 학생 개인의 취업역량을 극대화하는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이라며 "기업과 학교가 함께 설계한 현장 중심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은 물론,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현관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서거식 교육감을 포함한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북교육청, 30일까지 '제주 A중학교 교사 추모 주간' 운영
서거식 교육감 “교원 교육활동 보장·악성 민원인에 강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A중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자 오는 30일까지 본청 1층 현관에 분향소를 설치, 추모 주간으로 운영키

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분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추모 메시지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에도 추모 내용을 띄울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서거식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직속기

관장, 교육장 등 간부진이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 공간에는 헌화 및 교원들이 남긴 추모·기억의 글도 전시될 예정이다. 서거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가족, 스승, 동료들 잃고 슬픔에 잠겼을 유족들과 학생, 동료 교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원 보호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가전제품 체결부

비파괴 검사기술 개발

전북대 로스알라모스研
LG전자와 공동연구 협약



전북대학교는 지난 21~22일 이틀간 간디 솔리스트이안토(Gandhi Sulistiyanto) GK그룹 회장을 초청해 교내 투어 및 학생들과의 만남, 기업 미팅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로스알라모스연구소-한국공학연구원(소장 강래형, 유연인쇄 전자공학과 교수)가 최근 LG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벽걸이 TV 장착 구조물의 체결부를 대상으로 한 비파괴 검사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TV 등 가전제품의 체결 부위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화된 검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인니 GK그룹과 글로벌 연결고리 구축

전북대, 간디 회장과 교류... 지역 기업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1~22일 이틀간 간디 솔리스트이안토(Gandhi Sulistiyanto) GK그룹 회장을 초청해 교내 투어 및 학생들과의 만남, 기업 미팅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간디 회장은 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2021~2023)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문위원(2023년 7월 임명)을 역임한 인물로, 현지 정·재계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G20 국가이자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풍부한 전략 자원 보유국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번 교류를 기획했다. 특히 2024년 기준 5.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5대 경제 대국(GDP 기준) 진입이 예상되는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방문 기간 간디 회장은 전북대

JBNU 인터내셔널 센터, 중앙도서관, 의과대학, 기술사, 문화부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고, 양오봉 총장과의 접견 및 공식 오찬을 통해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DH그룹, DY이노베이트, ㈜오키, KCI 등 도내 대표 중견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자사 사업모델과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GK그룹의 현지 네트워크와의 접점을 모색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22일에는 전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한 간디 회장의 특강도 마련됐다. 40여년간 기업과 공직을 넘나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강연에서 그는 “리더십은 사람과의 관계, 끊임없는 배움,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유연인쇄전자 소재, 3D 프린팅 등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센서 기술, 복합재료 기반 소재 기술, 신소재 및 제어 기술, 딥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구조 건전성 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학생

다양성 문화 제작지원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로컬벤처학부는 2학년 백미현 학생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5년 다양성문화 제작 지원(창작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만화평론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소재와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대 1,8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제작한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매니지먼트사와 연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작자 선정은 과제이해도, 기획독창성, 기획완성도, 작품성 및 후속발전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에는 총 803개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110개의 우수한 과제가 선정됐다. 로컬벤처학부 백미현 학생은 “밝히는 소녀”라는 작품명으로, 지방소멸을 소재로 소멸의 틈을 막기 위해 7개의 빛을 찾아 밝히는 내용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힐링 판타지 작품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지원 선정에 대해 백미현 학생은 “오랜 작가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무언가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로컬벤처학부에서 창업을 매개로 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수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면서 작품 기획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민방위청장인 살렘 압둘라 빈 바리크 알다헤리 준장을 비롯한 대표단 9명이 소방안전 분야 국제 교육협력력을 논의하기 위해 우석대학교를 공식 방문했다.

소방안전 분야 국제 교육협력 논의

UAE 아부다비 민방위청장, 우석대 공식 방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민방위청장인 살렘 압둘라 빈 바리크 알다헤리(Salem Abdullah Bin Barrak AlDhaheri) 준장을 비롯한 대표단 9명이 소방안전 분야 국제 교육협력력을 논의하기 위해 우석대학교를 공식 방문했다. 26일 우석대에 따르면 최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는 서정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

준 총장,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벌30추진본부장,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우용득 대학원장, 서용성 사무처장, 공하성 소방방재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을 위한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패취약분야 분석, 청렴실행 전략 과제 도출

전북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청렴정책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을 위한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간부진이 참석해 조직 전반의 청렴역량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사관리, 현장체협합, 운동부 운영, 계약,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인사 운영, 예산 집행, 부당한 지시 및 청탁, 조직 내 갑질 행위 등 내부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이와 함께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천 강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해피콜' 등 신속 대응체계 마련 △민·관 협력 기반 청렴 거버넌스 확대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현장 중심의 실천 체계 구축이 청렴 행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렴도 향상 정책의 구체적 실행력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한 전북형 모델을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교육은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부패 없는 전북교육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더 멀리, 더 높이... 장애학생들 힘찬 비상

전북교육청, 30일까지 싱가포르서 해외문화체험학습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상반기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특히 싱가포르 특수교육 기관에서는



현지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특수교육활동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세종대서 개최

IB 고등교육 연계 포럼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3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IB 고등교육 연계 포럼(IB Higher Education Forum 2025)'에 유정기 부교육감, 교육전문직, IB DP 후보학교 관리자 및 코디네이터들이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포럼은 전국 시도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 협의체(KAIB)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대학신문과 IB 본부가 주관한 행사로 국내 대학교에 IB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와 IB DP 이수 학생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IB 프로그램과 대학 입시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IB 운영 12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전국 42개 대학 총장 및 60여 명의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IB DP 월드스쿨 및 후보학교 관리자 및 코디네이터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순창고 등 현재 4개 고등학교를 IB DP 후보학교로 운영 중이며,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 혁신 확산을 위해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날 포럼에 IB DP 후보학교로 운영 중인 순창고, 자유고, 전주고, 지평선고 관리자와 코디네이터들이 참석해 IB D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보다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입학 연계 방안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제고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등 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교급식담당자 식재료 안전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교육 내용은 △대표적인 유해식품첨가물 사례 △가공식품 속 숨겨진 성분의 위험성 △학교급식에서의 안전한 식재료 선택 기준 등이다. 특히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을 집필한 후발식품건강교실 안병수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